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3호 [무게 제23295호] 주제99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만년대에 훌륭히 건설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강건도계급요양원 사직전집원 김석준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지원사업을 잘하였다.

보통강구역 일리구 산업종합진료소 의사 강금순은 발전소건설을 돕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하였으며 평안영국영대학 교원 김은경도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었다.

청년들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선봉부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8.28부역관리국 문서원 김옥미, 산하단위 로동자 립영미, 개신병직회 김계원 김현옥은 발전소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건설에 성의를 다 바치였다.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로동자 최혜란은 힘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청년전위의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돛,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돛 기념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돛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돛에 즈음하여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집회와 사진전시회가, 로씨야 요스드르마주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 수공예품전시회 개막식이 1일과 11월 30일에 진행되었다.

불의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혁명활동사진들 그리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들과 사진들,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여있는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기층로조, 치파아에르마방송국, 로씨야 요스드르마주 정부, 요스드르마주 국립력사건축 및 예술박물관의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준비서는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인도하고계신다. 조선의 근대화와 인민은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입실단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그의 선군령도에 조선인민군은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행동을 짓부시면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그들이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이탈리아의 치파아에르마방송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찌기 무장을 들고 항일투쟁에 참가하시었다.

해방후에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 사회건설과 부강조국건설사업에 로 불리우시기였다.

나라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민주공화국 예술 및 직업양성학교 교장은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이 나라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을 모모것을 다 바치시었다고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오세에드 그리던 회령을 지척에 두시고 고향땅을 찾으시었다. 그러나 김일성주석의 새 조선건설로선 관철에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기 위해 공장과 농촌, 이촌을 찾으시었다. 그의 소원은 일제침략에서 벗어난 조국에서 조선인민을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인민으로 만드시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감동있게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완성한 데 대하여 창조집단에 감사를 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음악은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만만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향악단앞에 나서는 파업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창조자, 옹호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인민망, 인도네시아신문 《팜빠스》, 케스주제사상언론 및 구현소와 백두산세조조선전진회 인터넷포럼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정신력으로 선군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대중적설비관리운동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

올해 전국적으로 80여개 공장, 기업소와 50여개의 직장이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40여개의 직장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

각지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놀이 대중적설비관리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전국적으로 80여개 공장, 기업소와 50여개의 직장이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였으며 40여개의 직장이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기계설비를 주안으로 립장에서 앞달리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적으로 깨끗하여 생산능력과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대중적설비관리운동입니다.》

직중중앙위원회에서는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실현을 중시과업으로 틀어쥐고 각급 직맹조직들이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직중중앙위원회 일꾼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

◇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서깊은 해방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을 돌아보시고 방대한 공사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체전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선군령도의 그 비범한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다.

우리 당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에 의하여 해방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만점짜리이다.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꾸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때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훌륭하게 변모될것인가.

◇ 주체조선의 심장인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꾸리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언에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용을 피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주주의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대안들을 표시하시면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세계적인 도시로,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이 펼쳐지 구현된 도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것을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멘트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천리마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

최첨단과전으로 연구도입성과 확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해결이 펼쳐나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도인기 곳곳에서 최첨단과전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과학기술도입사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CNC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데 맞게 각종 수감부들을 새로 개발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한편 들끓는 생산현장에 뛰어 들어 최첨단과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여있는 사리원시 무곡

합동농장에 먹이공급으로부터 유기체비료생성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현대화된 축산물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평안도사리원사리원기초식품공장 사리원간자조직배양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최첨단과전을 힘있게 실시하고있다. 이들 공정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야생곰팡이의 제거, 현대화를 다그치는 추세로

총공세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뜻깊은 해

비약의 폭풍을 안아온 현명한 령도

력사적인 당대표대회와 당창건 65돐을 우리 조국역사에 특기할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주제 99 (2010)년의 마지막날이 흘러가고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이해의 날과 달들을 자랑한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온 우리의 미려한 로동계급, 온 나라 대경사를 안아온 주체비밀본, 주체비로코프와 조전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리를 힘있게 파시던 대대도간석지의 완공을 비롯하여 내 조국땅에서 다계단으로 일어난 크고작은 변들을 돌이켜보는 그들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승리의 기적이 뜨겁게 새겨지는 것이었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최첨발전소건설을 찾아오는 것으로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자욱을 찍고오는 한편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크고작은 공장들과 기업소들을 찾으면서 인민생활대교조의 열풍, 총공격적의 불길이 활활 타번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선군명장 비밀본을 위대하게 하였다.

동에 변백, 서에 변백은 나라를 주름잡으시며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고 이해의 마지막날에도 또다시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애국헌신의 장정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경

제강국건설은 문제였다. 바로 이런 승리의 신심과 락판으로 마음의 신들레를 바삭 조이고 각직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들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는 당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날 혁신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첫 현지지도로 찾으신 곳은 다음아닌 최첨발전소건설장이었다.

바람세한 눈보라기를 헤쳐시고 최첨 발전소 통림연제와 최첨 발전소건설장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새해전투에 과감히 돌입하여 새로운 천 리마속도, 최첨속도창조자들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는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선군명장을 삼가 우러르며 온 나라 근로자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새해의 첫 현지지도는 그대로 전체인민을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사업 관철로 산악같이 불려일어나는 총공격적의 위대한 기치로 되었다.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뿐 아니라 현지지도의 자족자족에 맥박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뜨거운 불길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우리의 로동계급은 초소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온 나라의 대경사, 주체비밀본 례폭포를 안아온 2. 8비밀본련합기업소가 전하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자.

지난 2월 초 10여년만에 비밀본대량생산의 동음을 다시 울린 기업소를 찾으면서 기술개진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루근너 또다시 비밀본생산현장에 오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에 비밀본대량생산의 시작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서 온 나라의 대경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한달도 못되어서는 현대적인 비밀본공정들을 구축하는 합동선군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그 의의를 천천히 되새겨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애비수령님의 나날을 다 활짝 꽃피워 나 나라, 내 조국땅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현지지도강행군에서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찾으시는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에 깃든 애비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적임을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되새겨주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었다.

대교조의 선봉에 선 김책체첵련합기업소를 찾으면서서는 우리의 야곱동은 어디어 주체첵생산체제에 의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주체첵생산의 대성공은 애비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공업발전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우리 당이 내세운 야곱동업의 주체화로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더 높은 목표점령에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주체비로코프가 쏟아지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돌아보실 때에도,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가스화대교진설장을 찾았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실현을 위하여 희생하는 로동들을 다 바쳐오신 애비수령님께서 함께 계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한해 끊임없이 찾고찾으신 수십개의 고대교진설장과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동서남북 편편히 이어진 수천수만리의 그 현지지도강행군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애비수령님의 유훈의 뜻

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당의 선군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적의 불길들 거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심장에 박동을 맞춘 친한군민의 충정이 선군조선의 불길의 정신력, 창조와 비약의 열원이 되어 온 나라의 대교조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났다.

금속공업과 마그네사스크링과 공업분야에서 주체화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실현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 대교조체제기지를 비롯한 중요기계공장들이 CNC와의 빛나는 결실을 안아왔으며 여러 중앙계급공기업들과 지방공업공정들의 기술개진, 현대화가 실현되어 있다. 최첨발전소건설장에서 세상이 주목을 높여오는 건설속도가 창조되어 발전소완공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음을 비롯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서 눈부신 성과가 달성되었다.

참으로 총공세의 불길속에서 우리 조국땅에서 뜻깊은 한해지기를 기록하며 올해를 빛내신 자랑찬 창조와 위훈의 그 모든 성과들은 애비수령님의 유훈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고 현지지도강행군을 위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준

주체공업의 우렁찬 울림이 울려 퍼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회적응능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줄수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축하한 올해에 우리의 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체첵과 주체공업을, 주체비로코프를 위한 그른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은 다계단으로 변이 난 올해를 이제 함께 장식하는데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자립경제의 튼튼한 창조기둥

뜻깊은 올해에 인민경제의 발전전망을 활짝 펼쳐며 온 나라에 주체첵생산체제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었다. 글자의

발전전망과 각기 강철공정에서 우리의 열로, 우리의 원료에 의한 철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첵생산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성강의 로동계급이 이미 마련한 주체첵생산체제가 더욱 높은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어 생산공정을 보다 완성해나갔다. 천리마체첵련합기업소 보산체첵소의 주체첵생산능력화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황해체첵련합기업소에서 능력이 큰 주체첵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기술준비를 끝내고 기본공사를 다그치고있다.

해산강철공정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철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지방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철강계증산으로 만들어가려는 금속공업부문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의속에 주체첵생산체제는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주체공업의 자랑-비밀본

뜻깊은 올해에 2. 8비밀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비밀본생산공정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려나왔다.

2. 8비밀본련합기업소에 최첨과학기술을 기초한 현대적인 주체첵수업설비까지 꾸려졌으므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비밀본생산과

정에 나오는 여러가지 중간제품들을 리용하여 수백가지의 화학공업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온 나라에 비밀본대경사를 안아온 주체비밀본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애국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생산능력화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자랑찬 현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성, 중앙기관,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무연탄가스화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주체비로코프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자랑찬 창조물에는 방대한 건설공사의 제 1시공주기가 되어 위훈의 자욱자욱을 수놓아온 남흥의 로동계급과 많은 대공사와 대상설비생산물 최종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글자의 비로코프체제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련관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 공사에 필요한 물품수송을 원만히 보장한 수송건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남흥청년 일떠세운 현대적인 비로코프체제는 애비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주체첵화공정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본사기자 백산혜

신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강철로 받들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었다.

강선의 봉화를 길들의 불길로 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해나선 김책체첵련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은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총공격적을 드세게 맞서 뜻깊은 10월의 명철을 맞으며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쳤다.

이 보람찬 투쟁과정에서 이들은 원호식련속조폭기의 조업을 보장하고 3호야겔로제전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며 수백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인들을 적극 도입하여 주체첵생산체제를 확립하는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천리마체첵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를 힘있게 하면서 대교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쳐 2호초고전력전기로와 다연소합금강성산기지를 일떠세우고 보산체첵 3호회전로제전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어 강철공정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황해체첵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주체첵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철강계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청진체첵강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주체첵생산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생산적양심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의 대교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수력발전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쳤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의 동음높이 연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전기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글자의 동력까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뜻깊은 당창건 65돐 전으로 연간 발전설비비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동명양, 순천, 청진, 청천화력발전소들에서도 설비비리리를 짜고들면서 생산투쟁을 줄기차게 다그쳤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석탄장산으로 우리 당을 절사옹위해나갈 각오로 단교수

천적 지하광맥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날김없이 발휘하였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체단구역을 확장하여 석탄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며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2단계개발구역 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형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천성, 신창청년탄광과 평대탄광에서 전담이 좋은 체단장들이 현이 마련되고 벨트콘베어 수송선과 자연배수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하여 서부지구탄광들의 수많은 갱들과 체단군대들 그리고 고속도굴진 및 굴진소대들에서 연간 석탄생산계획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도 올해에 중요물동수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철도국과 개천철도국에서 5. 1 8부사교정시절은 조파운동의 불길높이 더 많은 직을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수송실적을 부쩍 올렸다.

합동철도국, 청진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도 나라의 동맥을 억세게 지켜갈 굳은 의지를 안고 증중투쟁에 한사량 같이 떨쳐나섰다. 침묵교체와 로탄단지, 자갈보충 등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보수과제들도 훌륭히 수행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대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명도는 날을 떠나며 도래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로 기록될 뜻깊은 올해에 전국각지에서 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차례나 공사장에 모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최첨발전소건설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연제공로리터치고 물길굴공사, 발전기설과 증전선공사에서 대학신을 창조하고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군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동해지구에 대규모의 금야강군민발전소 인제가 일떠섰으며 평성강정년 2호발전소가 훌륭히 건설되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1호발전소 인제가 배수마감물막이가 진행되고 원산군민발전소와 어랑년 2호발전소건설에서도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헤쳐냈다.

메성강 6호발전소와 연산군민발전소가 성과적으로 준공되고 부령 5호발전소 물막이인제가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자강도와 황해북도, 함경남도도 강전도, 향강도 등 전국각지에서 수십기에 달하는 증중발전소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평안북도간석지전력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단력과 배양으로 산을 허물어 바다를 매우며 웅근 한계 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지땅을 얻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서해의 남바다우에 대교조간석지가 거연히 솟아오르며 대교조의 기도가 달라지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으며 활황한 대교조지구에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움직이는데도 수백정보에 달하는 분지만간석지가 훌륭히 건설되어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만물창가 마련되었다.

농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추월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이 성과적으로 준공되어 주물물과 압축기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되었으며 단천 마그네사공업에 무연탄일련생산공정을 비롯한 새로운 생산공정들이 꾸려져 마그네사스크링 카공업을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되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평양공산공정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기술개진으로 역포목의 생산능력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평양양말공장에 너지양말직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졌다.

후대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유서깊은 통남산마루에 각종 최신식전차시빌로 장비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소르치며 일떠서고 평양무용대학이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었다. 뿐만아니라 수도 평양의 개신전공원을 개건조고 국립

연극극장과 옥류관 로리전문시당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해방기술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피어 넘쳐나고 있다.

광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황해북도인민학당과 사리원경기장이 일떠서고 향산호텔이 개건되었으며 회령에서 사회금양봉사당이 훌륭하게 꾸러졌음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선군시대를 빛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본사기자 정순성

과수업발전의 튼튼한 토대 마련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올해에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이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나라의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신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 확충공사와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도처의 과수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자랑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내 조국땅 곳곳에 희한한 청춘과원들이 일떠섰다.

선군 11경으로 그 이름 자랑높은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이 나라의 으뜸가는 대규모과수업발전기지로 전변,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 힘있게 추진, 각기 과수농장들에서 수천정보의 과수원이 우량품종의 과일나무시기 성과적으로 진행...

이것은 뜻깊은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내 동강과파수종합농장이 올해에 들어와 단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과수업발전기지로 전변되었다.

결사관철의 의지로 분발해나선 조선인민대무군 군민건설자들 는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 확충공사에서 결연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난관을 바치며 수십km에 달하는 도로 및 물길건설과 연 400여리에 달하는 전호식구쟁이파기를 진행하며 수백만그루의 과일나무시기를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그리고 최신식설비들도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세척으로부터 절단, 말리우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파원편공장을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과 페지공장전공사에서 혁신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 펼쳐나선 618건설전대원들도 현대적인 청춘과원건설에 애국의 맘을 바치였다.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며 이곳 돌격대원들은 수백정보의 토지정리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1단계공사를 짧은 기간

에 완공하여 고산명에 현대적인 과수원을 조성해놓았다.

혁신의 불길은 각기 과수농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함경남도, 평안북도에서 현대적인 과수농장건설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풍진, 덕성, 평평과수농장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과수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수원들에 키우는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었다. 평안북도안의 과수농장들에서도 미리부터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을 준비한데 기초하여 과일나무심기를 중중적인 사업으로 내밀어 많은 과수원들을 청춘과원으로 건설시켜놓았다.

뜻깊은 올해 과수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조은 키낮은 과수농장을 조성해놓고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을 기술적으로 구대도 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각기 과수농장에서 올해 정초부터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각 과수련합회사 일꾼들은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을 찾아가 좋은 경형을 배우고 모든 과수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내밀었다.

과수묘목농장들에서는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을 부쩍 늘리기 위해 세 기술도입사업을 적극 벌리었다.

선천과수묘목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절묘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다. 신성, 병성과수묘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앞선 절묘법들을 받아들이고 과일나무모를을 튼튼하게 자라내기 위해 온종일 포전에서 살며 일떠였다.

과수련합회사에서는 새로운 과일나무모를을 기계를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좋은 과일나무모를을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러하여 각기 과수묘목농장들에서는 올해 과일나무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난 6월 능력화장된 대동강과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시고 과수업은 토양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땅의 지력을 높일 때만이 질 좋은 과일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각기 과수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혁신의 앞장에는 온천과수농

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이 농장에서 애비수령님의 유훈대로 돼지들 많이 길러 물고기들을 과일나무밭에 내어 과일생산을 늘였다.

통진, 길주과수농장들을 비롯한 각기 과수농장들에서도 성과를 세우려는 고리형순환생산체제가 큰 은을 내었다.

과수농장들에서는 돼지축산장을 잘 꾸려놓고 모든 과수농장들에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공급해줌으로써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과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게 하였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나라의 인민을 위한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평양, 사리원, 황주과수농장들과 속천청년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효능 높은 식물성양액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각기 과수농장들에 생겨난 흙보산비료생산기지와 식물성양액생산기지가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보람찬 한해를 돌이켜보는 과수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다음해 과일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열의로 끓고있다.

본사기자 활연옥

자기 힘을 믿고 농장마을을 선경으로 안락군 통합농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얼마전 통합농동농장을 찾았던 우리는 물라보게 변모된 농장마을의 경관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상요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러진 위대한 농동농장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과 영농탑,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문화회관과 편의봉사시설, 문화주택과 작업반건물들...

농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마을도 더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 수천만 작업복을 입고 깊은 생각에 잠겨 농장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농장에 새로 일떠서온 관리위원장 최영남동무였다.

관리위원장은 백두산위원들의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여러가지 농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선경으로 꾸릴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꾼들은 양양된 대동의 열의에 맞게 해마다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에 노력하는 열정을 불태웠다. 그러하여 사상요양 거점들은 물론 수백동의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번듯하게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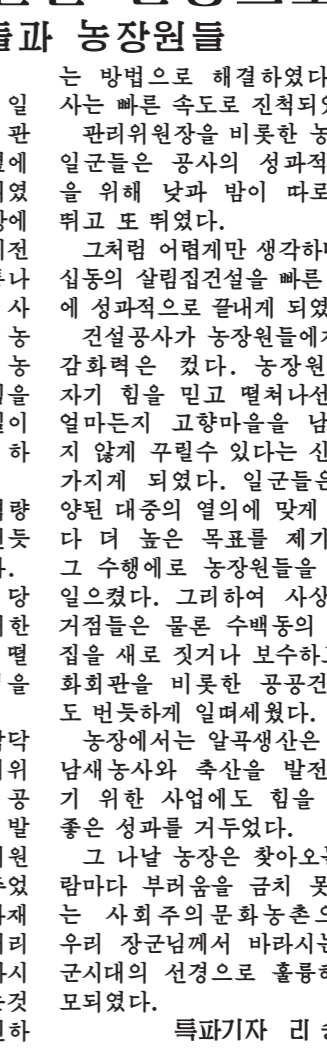
농장에서는 알뜰생산은 물론 남새농사와 축산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나날 농장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훌륭히 변모되었다.

특기기자 리순철

선군조선의 자랑찬 창조물 - 대교조간석지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회령시에 훌륭히 꾸려진 현대적인 봉사망

아버지 그 사랑 길이 길이 전하리

은 나라 근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깔없이 물결쳐오는 뜻깊은 혁사의 땅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넋원을 활짝 꽃피우며 회한한 봉사망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얼마전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봉사망들을 돌아보시며 훌륭한 봉사망이 꾸려진 결과 시민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연건축적이 4 000여㎡에 달하고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회령관.

민족적고민과 현대적미가 결합되고 우아함과 정교함이 잘 조화된 평양의 유류관 못지않은 회령관은 설계로부터 시공, 추방설비에 이르기까지 흠 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이다.

민족적정서를 자아내는 합각지붕형식의 등직하고 환한 건물들인 청량음료점, 내포국집, 토끼고기전문식당, 순두부국집, 강냉이전문식당, 짜장면집, 전골집 등 전문식당들이 줄지어 늘어선 음식거리도 또한 얼마나 훌륭한가.

매 식당마다 봉사하는 음식은 물론 설계와 시공, 조망과 장식, 식탁과 의자, 봉사자들의 접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독특하고 개성적이면서도

하나같이 훌륭하고 황홀하여 하나의 식당을 나서면 다른 식당으로 편이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음식거리.

이뿐이 아니다. 시내의 곳곳에 새로운 모습으로 훌륭하게 일떠선 회령은반점과 백살구술집, 불고기집, 생선국집, 회령떡국집, 단고기집을 비롯한 봉사망들에서도 회령시민들의 기쁨이 깔없이 넘쳐흐르고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인 회령식료가공공장에서는 강냉이병숙, 국수, 빵, 떡국대, 김치, 두부, 조미료, 산유, 요그르트, 맥주, 에스모, 장출입을 비롯한 수십종의 식료가공품들이 쏟아져나와 시민의 건강망들과 주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나무도 똑같은 황홀경에서 회령시민들이 러뜨린 감각과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김정숙 어머니님, 우리 장군님께서 뜻깊은 이 땅에 어머니의 넋원을 활짝 꽃피워 주셨습니까.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다.

회령!

조용히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군복입으신 모습이 정당하게 어려오고 백살구꽃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와 가슴을 찡어드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맥두의 실천을 해치시며 그려보시고 새 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며 품으신 우리 어머니의 그 넋원을 력사의 이 땅에 꽃피워주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기율이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였는가.

지난해 2월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회령에 오시어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해주시며 회령시의 사회공급부문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밀데 대한 구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회령시의 사회공급부문을 잘 꾸릴데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나라의 이름있는 설계집단을 파견해주시고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직접 형상안을 보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힘있는 건설집단과 건설자재들도 다 보내주시며 회령시 일꾼들과 건설자들에게 힘

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원료자재보장을 위한 기지들도 전망성있게 꾸리도록 해주시고 문건기재들과 최고급의 수많은 주방설비들, 10여만점의 집기류들도 일식으로 보내주시어 봉사망이 건설되자마자 실지로 은을 낼 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다 취해주시어 아버지장군님의 그 세심한 은성애에 펼쳐진 오늘의 기쁨이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힘이 되고 지혜

와 열정이 되어 회령시민들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토록 회한한 전면을 안아올 수 있지 않았던가.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회령시의 봉사망들에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하기에 회령시민들모두는 몸은 비록 머나먼 최북단에 있어도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랑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불라는 열의에 넘쳐 있다.

글 및 사진 봉사기자 장은영



회령관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정책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회령시민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회령관! 이곳을 찾는 회령시민들의 즐거운 모습에 이따금씩 활짝 펼쳐진 연건축적이 4 000여㎡에 달하는 회령관의 외부는 더욱 황홀하여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바닥에 펼쳐진 보석주단이며 령문처럼 빛나는 천정무늬, 하얀 백살구꽃과 진달래꽃바다에 묻힌 회령고향집 풍경화...

식사실들이며 계단, 벽체, 천정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과 섬세함, 우아함과 황홀함을 한껏 내보냈고 우리의 입에서는 감탄이 연방 터져나왔다.

회령관이 이렇게 까지 황홀하게 꾸려진 줄은 정말 몰랐다.

흰눈같이 하얀 천정이며 달큰귀리는 바닥, 빛을 뿌리는 무늬등...

마치도 평양의 옥류관에 들어선것만 같아 더욱더 즐거워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이전에 평양 견학을 갔을 때 옥류관에 한번 들어가 보고는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옥류관 못지 않은 회령관이 이렇게 보란듯이 일떠서니 회령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한다. 건물은 건물대로 독특

특히 하나하나가 다 흠 잡을 데 없는 완성된 예술작품 같은 식사실들은 다 자기의 고유하고 독특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 더욱 이채롭고 매력적이었다.

《마치 평양의 옥류관에 들어선 것 같지 않습니다. 회령시의 산업등에서 가족과 함께 왔다는 한 로인은 우리를 자기들의 식탁으로 무작정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회령국수가 유명할데 이런 회한한 식당에서 맛있게 되고 그 맛이 더욱 발달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습디다. 이렇게 훌륭한 식당에서 성의있는 봉사를 받고도 강성대국이 는 앞날에 온것만 같습디다. 우리 장군님께 감사의 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갖 실험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과 흠모의 정으로 회령시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가슴깊이 고이고 있는가.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걸음을 옮기며 회령관 문을 나섰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세차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봉사기자

들에서도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토록 훌륭한 만점짜리 봉사망에서 빵과 국수, 여러가지 청량음료를 맛있게 즐겨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행복 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회령시의 산업등에서 가족과 함께 왔다는 한 로인은 우리를 자기들의 식탁으로 무작정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회령국수가 유명할데 이런 회한한 식당에서 맛있게 되고 그 맛이 더욱 발달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습디다. 이렇게 훌륭한 식당에서 성의있는 봉사를 받고도 강성대국이 는 앞날에 온것만 같습디다. 우리 장군님께 감사의 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갖 실험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과 흠모의 정으로 회령시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가슴깊이 고이고 있는가.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걸음을 옮기며 회령관 문을 나섰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세차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봉사기자

그날의 높은 돛 받들어

토끼고기전문식당 봉사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책임자 김영관동무도, 함께 일하는 요리사들도 기뻐 으며 토끼고기요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 있다.

최상급의 가공설비들이 그 흔하게 갖추어진 회한한 주방에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궁지와 보람을 어디에 비기랴.

봉사망들이 새로 훌륭히 꾸려진 데 맞게 로리의 가지수와 질도 그에 따라세우도록 하기

위해 회령시의 요리사들이 평양의 이름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맛도 보고 기술도 배우도록 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그리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신 듯 고급요리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많은것을 배워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이틀만 이 아닌 회령시 봉사망의 모든 요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불과 한두달사이야 부족 뛰여오를 수 있었다.

한가지 요리라도 더 많이, 더 맛있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줄으로써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그대로 가장게 할 이들을 불라는 열의가 하나하나의 요리마다에 그대로 어려웠다.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도 그들은 음식마다에 정성을 다해간다.

봉사기자

《아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소문에 알려진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데 너무도 좋았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 손바닥까지 치며 달려와자고 걸음을 재촉하건만 웨서인지 발을 옮길수 없었다. 한길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니 생각이 더 깊어져 인민들에게 안겨줄으로써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그대로 가장게 할 이들을 불라는 열의가 하나하나의 요리마다에 그대로 어려웠다.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도 그들은 음식마다에 정성을 다해간다.

봉사기자

다 함 없는 감사의 목소리

회령관이 이렇게 까지 황홀하게 꾸려진 줄은 정말 몰랐다.

흰눈같이 하얀 천정이며 달큰귀리는 바닥, 빛을 뿌리는 무늬등...

마치도 평양의 옥류관에 들어선것만 같아 더욱더 즐거워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이전에 평양 견학을 갔을 때 옥류관에 한번 들어가 보고는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옥류관 못지 않은 회령관이 이렇게 보란듯이 일떠서니 회령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한다. 건물은 건물대로 독특

한 건축미를 뽐내는듯한데 갖가지 청량음료들과 국수를 한상 차려주며 웃음짓는 접대원들의 친절하고 모순도 또한 회령관의 풍치를 더해주었다.

어찌 회령관만이라.

우리 회령시내에 일떠진 모든 봉사망들이 너무도 훌륭하고 음식들도 회한하여 꼭 품을 꾸는것만 같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봉사망들이었다.

그렇지 못한 가슴속에서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회령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더욱더 불라는 투쟁열의가 세차게 끓어번진다.

회령시산림경역소 기사장 허성수

시원한 청량음료들과 갖가지 빵을 맛있게 즐겨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다 다한 인민만이 소중히 간직된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는 인민의 감탄봉사가로서의 창와 영예를 빛내갈 결의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음식을 안겨주기 위해 더욱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봉사자답게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청량음료점 책임자 홍명희

하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 영영히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위대하고 숭고한 인민만이 소중히 간직된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는 인민의 감탄봉사가로서의 창와 영예를 빛내갈 결의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음식을 안겨주기 위해 더욱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봉사자답게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청량음료점 책임자 홍명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로동당 대표단 접견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쯘말리 씨이 나손동지가 6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장관 퉁론 씨우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대의관계위원회

위원장, 분본 볼타나일 당중앙위원회 사무장 등 관계자들과 한봉호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쯘말리 씨이 나손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영일동지가 전달하였다.

쯘말리 씨이 나손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의 회담이 6일 비엔티안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한봉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장관 퉁론 씨우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대의관계위원회 위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 할 동정형을 통보하였으며 두 당사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 데 대하여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원림록화형성설계현상모집전시회 진행

전국원림록화형성설계 현상모집전시회가 7일과 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있었다.

백두산전승연구원, 민주대학작사, 평양원예지도국,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평양건설전대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기술자, 근로자, 교원, 학생 등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250여건의 형성안이 제출되었다.

전시회는 혁명사적지와 주요광장, 지점, 공원, 유원지, 살림집구원원림형성부, 대형화대형성부, 소형구조물형성부

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제와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주변과 평양시내 중심거리, 주요광장, 공원, 유원지들과 도시와 마을의 원림록화사업에 기여할 형성안을 내놓았다.

평양건설전대대학의 금수산기념궁전 앞도로원림형성안, 민주대학작사의 평양—향산관광도로 입구화대형성안, 평양시인민위원회 원림관리국의 영생탑원림형성안, 백두산전승연구원의 주령구역, 공원원림형성안 등 60여건의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메카식이 8일에 있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 있었다.

황학원도시경영상이 메카식을 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원림록화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좋은 형성안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진국으로 건설시켜 달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과 라오스인민혁명당사이의 협조 및 대표단교류와 관련한 합의서 조인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과 라오스인민혁명당사이의 협조 및 대표단교류와 관련한 합의서가 6일 비엔티안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한봉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장관 퉁론

씨우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대의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일비서와 퉁론 씨우트 위원장이 합의서에 수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년을 축하한다.

그이의 선군명도에는 조선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자정치를 실시하고있다.

부룬디는 이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앞으로 조선과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부룬디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베르 은쿠룬지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에게 정태양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월 30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베르 은쿠룬지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동지

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일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시기 부룬디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지지와

사화와 집단의 존경을 받는 참된 인간

강동탄광 26호설비공무동력과 로동자 김영일동무는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인간이다.

지난 10월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김영일동무는 어느 한 건물에서 불빛이 번쩍이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불길의 건물안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불붙는 건물안으로 뛰어들어 가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왔다.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속에서도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궁지로 웃음짓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몇해전에 김영일동무는 물에 빠진 한 어린이를 희생적으로 구원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참된 인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날 사람들의 가슴에 소중히 깃들었다.

로동동원원 조영철



아름답게 펼쳐진 인민대학습당의 설경



봉사기자 립 학 락 적음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상보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가 우리 군대의 단호한 정벌을 받았다.

연평도포격사건은 그 직접적동기와 과정, 근원과 배후를 볼 때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해 사전에 면밀하게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극히 엄중된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을 전도하는데 이골이 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이번 사건을 《북의 도발》로 황당하게 외목하는가 하면 《민간인피해》요 뒤호 하면서 전대미문의 일대 반공화국광판을 벌이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조선서해에서 발생한 연평도포격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까밝혀 도발자와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상보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 일대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으며 마침내 군사훈련을 구실로 직접적인 포사격도발을 감행하는데 이르렀다.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와 경위를 보면 피뢰들의 고의적인 도발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11월 22일부터 조선서해 군사분계선가까이에서 《호국》훈련을 벌여놓고 우리측 수역을 향해 포탄을 마구 쏘아대며 전쟁광기를 부리었다.

우리 군대는 11월 23일 오전 여러 차례 전화통지문을 보내어 서해상에서 감행되고있는 《호국》훈련을 당장 중지할데 대해 거듭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호전광들은 23일 13시경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로 그에 대답해나섰다.

연평도는 해상분계선으로부터 우리측 명해안에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그곳에서 포살탄사격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쏘든 포탄이 우리측 명해안에 떨어지게 되어있다.

조선사격구역에 일부러 우리측 명해로 설정하고 무리 수천발에 달하는 포사격을 가한 피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행위는 명백히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자극포 명해에 적군의 포탄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지켜만 볼 군대가 이 세상 어디에 있었는가.

청와대관계자들까지도 《북측의 공격은 23일 오후 2시 34분쯤 시작됐는데 이에 앞서 북측은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수차례 보냈다. 전화통지문에는 22일부터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진행중인 《호국》훈련이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가 아니냐는 내용의 항의성명이 담겨져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남조선 《CBS》 2010년 11월 24일》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신불질을 해온 피뢰파당의 호전적행위는 이번 사건의 도발적성격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의 대응타격은 정당한 자위권행사이며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이 아무리 적반하장적으로 사건발생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해도 진상을 감출수 없다.

피뢰파당이 《민간인피해》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그것 역시 저들의 잔학성과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억지편에 불과하다.

이전 시기에도 서해상에서 여러차례 군사적충돌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섬주민들까지 방패로 삼아 도발을 건 호전광은 일찌기 없다.

피뢰호전광들은 몇년도 안되는 자그마한 섬에 피뢰군의 군사시설과 민간인마을을 마구 섞어놓고 군기시간에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인질로 삼아 우리의 대응타격을 피해보려 하였다.

무고한 섬주민들을 인간패물로 삼은 피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만행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이다.

제반 사실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이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해 사전에 명백히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고의적인 반공화국군사적도발행위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운이 높아갈 때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공화국모략과 군사적도발에 매달렸다.

피뢰호전광들이 집권한 후 북침전쟁연습도 크게 늘어났고 더욱 위험하게 벌어졌다.

특히 연평도일대에서 피뢰들은 군사훈련을 더욱 빈번히 감행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리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사격훈련규모가 증가했다. 이해 연평부대는 27번의 훈련을 실시했고 사격발수도 수십배로 늘었다. 훈련종류도 해안포사격, 공용화기경계사격, 조영지원사격 등 6가지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폭로한것은 그 일단이다. 《남조선 《노컷뉴스》 2010년 12월 2일》

피뢰파당은 그 무슨 《급변사태》라, 《통일세》나 하며 《홍수통일》의 허황한 망상에까지 사로잡혀 북침전쟁각본들인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30》을 보다 악랄한 《신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5015》 등으로 보완비하하였다.

피뢰파당은 그 모든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전쟁책동이 내외여론의 규탄배격을 받고 총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자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특대형 충격적인 사건을 도발하는것으로 최후발악해나섰던것이다.

역적페당은 불과 3년도 안되는 기간에 북남관계를 장그리 말아먹었다.

남조선보수당국자들에 대해 양쪽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동족대결홍심만 짙 들어차있다.

모든 사실은 연평도포격사건이 피뢰파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라는것을 보여준다.

다들의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피뢰보수페당이 미국의 전락에 놀아나 위험한 전쟁도박과 굴욕적인 협상놀음을 벌리는데 대해 《간도 쏠개도 다 배준 굴욕외교》, 《생명과 돈으로 산 한미동맹》 등으로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미국이 연평도포격사건후 피뢰들의 그 무슨 《보복계획》을 적극 부추기면서 최신무기들을 대량공급하고있는것도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 막후장본인이 미국이라는것을 폭폭히 보여준다.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서해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은 언제 가도 가사질수 없다.

연평도포격사건의 북남사이의 무역분쟁과 오늘의 침체에 연계를 타개할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인 동시에 평화선언이다.

10.4선언에는 서해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해 북남간접의 경제선언대에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제시되어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되었더라면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나 미국과 남조선피뢰파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의 희생물로 되여서는 안될것이다.

연평도포격사건에서 민간인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군사적도발을 일으킨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에게 책임이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는것은 남조선민들이다.

남조선 각계각층은 민족의 머리로 하여 핵전쟁광화를 몰아오는 미국과 피뢰파당의 군사적도발책동과 북침전쟁소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단호히 규탄배격하여야 한다.

은 민족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인류의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광판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제99 (2010)년 12월 8일 평양

1

연평도포격사건은 남조선호전광들이 침에 반쟁지역인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에 있어 위험한 군사훈련을 벌여놓고 우리측 명해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조선서해 연평도일대로 말하면 지난 시기 여러차례 북과 남의 군사적충돌이 일어난 매우 예민한 수역이다.

1999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전면전으로부터 확대될만한 아슬아슬한 군사적접전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크고작은 충돌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남조선피뢰들은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를 《방어》한다는 구실밑에 연평도와 그 일대에 침략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았다.

면적이 불과 6.8km, 둘레의 길이가 약 18k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연평도에는 피뢰해병대단과 한개 중대이상의 《K-9》자형포가 배치되어있으며 수많은 탐지수단과 정보통신시설들도 막 들어있어 연평도는 피뢰들이 《경제1순위지역》으로까지 꼽을 정도로 요새화된 핵심군사요충지이다.

피뢰들이자신 연평도주변에는 《최첨단인공지능함 1800여척, 기동성 및 화력이 대폭 보강된 고속정 70척 이상을 배치》하고 호인장담할 정도였다. 《남조선 《서울신문》 2009년 1월 9일》

올해 3월 피뢰초계함인 《천안》호가 침몰한 곳도 연평도에서 그리 멀지 않

2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3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연평도포격사건은 피뢰보수페당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보수페당은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통일대결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여 북남분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더우기 피뢰역적페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을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미국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달라졌다.

피뢰파당에 의해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과 폐양이 전부 중단되고 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시종 우롱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는 그사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남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한데 이어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상봉정성화를 위한 일련의 성의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피뢰파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그에 뒤서리가 내리게 하였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계급투쟁의 진리를 새겨준 예술선동

씨뿌리기를 앞둔 어느날 일군들과 함께 농장에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계급교양예술선동 《복수하리라》를 보던 신천군 석당리당비서 최성복동무는 계급교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예술적측면만 강조된 나머지 교양에 서린 중요와 절규를 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때문이었다. 정확한 평가였다. 출연자의 대부분이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만행에 대하여 옛날처럼 들어온 20대, 30대의 세 세대들인 조건에서 이것은 그 어느 단위에서나 부각될수 있는 문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사회되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락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당에서

신천군 석당리당위원회에서

있는 대학살참사에 대한 보고를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들은 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진정이 끝난지 한달도 안되는데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학살만행이 감행된 현장인 석당리에서 돌아보고 세 세대들을 속여 계급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 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심화시켜나가자면 우선 출연자들부터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의 공연이 원수놈들에게는 무서운 폭탄이 되게 하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는 원수격멸의 불을 달아주는 도화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문제를 어떻게 세운 리당위원회는 출연자들속에 교양방에 서려있는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목

격자인 리로인을 내세워 학살만행현장인 석당리에서 진행한 이데기모임이었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은 석당리에서 짐승도 낮을 불쌍히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저질렀다.

해방후 제방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죄 아닌 죄로 남편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의 머리를 도끼로 까고 강물에 던져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실, 조선로동당원의 가족이라고 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석당리에 끌고가 총창으로 찌르고 목에 돌을 달아서 강물에 처넣은 사실, 유부녀들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사지를 찢어죽인 사실...

무척한 사실을 한가지도 빼놓지 않고 생중음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의 절규를 대변하여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폭로단죄하는 그의 이야기는 예술소조원들의 가슴마다에 복수의 불을 달아 주고 원수놈들과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사생결단의 각오를 굳혀주었다.

특히 석당리에구멸사묘앞에서 진행된 예술소조원들의 복수절의모임은 그들을 각성시키고 계급투쟁의 창조성었다는 자각을 새겨주는 계기로 되었다.

실제한 자료를 통하여 계급투쟁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예술소조원들은 예술선동이 웅대한 실패를 거듭없이 하였다.

오늘의 영농전투는 단순한 영농공정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세대가 끊임없이 교체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는 리당위원회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본사기자 손영희

농들과는 결단코 피의 결산해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새겨주는 계급교양예술선동은 사람들의 심금을 완전히 울려잡았다.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

자본주의의 《황기로운 바람》을 넘어가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

농장원들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열정이 편이 터져나왔다. 준비있게 진행된 계급교양예술선동이 웅대한 실패를 거듭없이 하였다.

오늘의 영농전투는 단순한 영농공정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세대가 끊임없이 교체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는 리당위원회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본사기자 손영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중앙계급교양관련일 참관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새진평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뢰파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주의를 넘겨낼수 없다.

농장원들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열정이 편이 터져나왔다. 준비있게 진행된 계급교양예술선동이 웅대한 실패를 거듭없이 하였다.

오늘의 영농전투는 단순한 영농공정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세대가 끊임없이 교체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는 리당위원회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본사기자 손영희

들에게 미제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적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식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침미사대와 굴종으로 잔병을 유지하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를 일삼는 남조선통치세력의 괴행을 폭로하는 료화편집물, 증거자료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불타는 적개심으로 피를 끓게 하고있다.

참관자들은 남조선피뢰파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결코 조국수호전에 결연히 떨쳐나서 싸워야 할것이다.

참관자들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 아침도 우리 교정에 비낀 두 모습

은 어린이들 다른 나라에 장 기제공자로 팔아넘기려 하였다

다름아닌 돈때문에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나라의 왕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참극이 벌어지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교정에 비낀 두 모습

은 어린이들 다른 나라에 장 기제공자로 팔아넘기려 하였다

다름아닌 돈때문에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나라의 왕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참극이 벌어지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동맹군계급교양관에서 군단위원회의 지도밑에 계급교양관을 잘 꾸려놓는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동맹군계급교양관에서 군단위원회의 지도밑에 계급교양관을 잘 꾸려놓는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동맹군계급교양관에서 군단위원회의 지도밑에 계급교양관을 잘 꾸려놓는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동맹군계급교양관에서 군단위원회의 지도밑에 계급교양관을 잘 꾸려놓는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하여 남이 갈수 록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급교양관에서는 이 동강의와 예술선동공연 등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철폐의 복수심을 심어주고있다.

리영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리진명 찍음

